

**독** 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설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 길을 묻는 이에게

제 1030호 현대불교 29  
2015년 2월 5일(12월 17일) 목요일 / 불기 2559년

# 일체를 내 모습과 둘 아나게 등글러서 주인공 하나로 보라!

(지난 호에 이어서)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내 앞에 봉투를 갖다 놓고 “스님! 이리이러한 데 이렇게...” 하고 말씀할 적마다 아이, 참 내! 앞에 봉투를 안 갖다 놔도 될 수 있는데 봉투를 갖다 놓는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두 가지 여건이 있죠, 하나는 보시금이면 다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 쓰는 거 아끼지 않고 다만 얼마라도 갖다 놓는 거, 자기는 정성의 마음으로 갖다놓는 거, 그건 하늘이 다 아는 얘기니까 내가 주제넘게 말을 할 수가 없죠, 갖다 놓고 안 갖다 놓는 걸, 거기 갖다 놔줄 때, 그리고 내가 그것을 받았을 때는 나를 갖다 준 것도 아닙니다. 그게, 여러분은 나를 가져다 줬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나를 갖다 준 게 아니에요. 결국은 자기 자부처에 갖다 놓은 겁니다. 모습이 둘이 아니요, 와서 나를 만날 때는 자기 모습과 내 모습이, 자기 마음과 내 마음이 둘이 아닌 까닭에 그게 이루어지는 거니까, 불이 켜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둘이 아닌 한마음에 갖다 놓은 거지, 부처님한테 갖다 놓은 거지, 우리 모습 육신 잘 살라고 갖다 놓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처님 스승에 의해서 그거를 하나하나 잘 구석구석에 써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해결을 해 주니까, 써 주니까 그 돈을, 갖다놓은 사람들은 그 인연으로 인해서, 그 정성으로 인해서, 그 실천으로 인해서 모두 부모의 조상도 같이 있던 게 풀려나게 됩니다. 천차만별의 갈래갈래 모습들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온 그 자체가 그냥 업이죠, 그 속에 들어서 헤어나질 못하고 가지가지 모습을 가지고 나왔으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한 가정에 한 사람만 극진히 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게 다 은근히 풀려 나간다고 그랬는데 집안에 어떠한 큰일이 있으면, 유전성으로 인해서 큰 문제가 있을 때는 그런 건 대대로 내려오면서 유전적이거든요.

그렇다면, 무거운 두 손으로 다 들듯이, 한식구가 다 이 공부를 하면서 열심히 관하고 이력한다면 한울이, 제불(諸佛)이 꺾꺾 웃으면서 더불어 같이 한자리 할 겁니다. 그런 것도 모르고 그저 자식들도 돈으로만 해결해서 먹이기에 잘하고 입히기에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데 그게 아니죠, 그저 관하는 것만 일러 줘서 자기 나무가 자기 뿌리를 믿고 찾을 줄만

안다면 뭐든지 거기에서 실천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 보배를 찾아 줄과 같죠.

돈이라는 거는 있다가도 한 번만 잘못되면 그냥 왕창 다 없어져 거지가 돼 버리고 마는 것이 돈이거든요, 그러나 이 보배라는 것은 울 귀먹어도 울귀먹어도 그대로 남아 있어요, 먹어도 먹어도 줄지 않고 넣어도 넣어도 불어나지 않고 그냥 영원하게 세세생생에 쭉 그 종자가 내려가는 데도 손색이 없다 이런 말이죠.

어휴, 하여튼 보살이 무슨 말을 했는데 내가 이런 말을 하는지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하고 있소,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이렇게 이렇게 해도 먹는 사람은 먹고 싶은 거를 다 집어먹을 수 있으니까 나는 걱정을 안 해요, 내가 걱정하는 것은, 걱정도 아니지만 마음을 좀 툭툭 벗어나 봐라, 좀 대수롭지 않은 일에도, 어디 좀 그런 그림이라도 있으면 그 속에 들어가서 산책이라도 좀 해 봐라, 허허, 또 산책을 해 보다 보면 좀 볼거리도 있을 거다, 또 어느 물에도 좀..., 그 괜히 뛰어 들어가려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생기길랑은.

예전에 어떤 사람이 술잔을 하나 만들었더

래요, 그런데 술잔 안에다가 자기 영혼을 집어 넣었거든요, 허허허, 그게 마음이라는 거죠? 집어넣어서 만들었는데 말이예요, 술을 먹을 만치만 부어서 먹어야지 더 먹는다 하면 술이 부으면 없어져요, 허허, 그러한 잔도 있었답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마음인 영원한 그 마음 자체를, 줄지도 않는 그 마음을 말입니다, 마음대로 늘여서 쓰려면 늘여서 쓰고 줄여서 쓰려면 줄여서 쓰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고, 펼쳐서 쓰려면 펼쳐서 쓰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허공에 그 생명들의 마음도 포함이 돼 주기 때문에 에너지가 저절로 항구적으로 자동적으로 그냥, 마음 쓰기에 따라 쓰여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마음공부를 하는 사람이니까, 즉 말하자면 그걸 풀어 쓰려고 애써서 하나만 풀어서 에너지를 사용했는데, 우리는 만년묵이거든, 난리가 나도 들고 다닐 필요도 없이 여기에 만년묵이로 돼 있거든, 여러분의 컴퓨터에 다 들어 있고 그걸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세세생생을 써도 줄지 않는 그런 무기가 돼 있거든.

이렇게 조금조금 말 못하는 일들을 그저 대

수롭지 않은 데서 힌트를 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난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이 급하면 아무것도 모르고, 만약에 불이 났다 하면 그냥 살 양으로 뛰어나가려고 애쓰죠? 그와 같이 무슨 일이 생기면 주인공도 그렇게 부릴 수 있다, 허허, ‘급하면 하겠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급하면 마음으로 늘여서 쓰든 줄여서 쓰든 그냥 점프를 해서 쓰든 그냥 쓸 거다, 허허, 이해가 갑니까?

**질문자2(남)** 제가 처음에 나올 때는 스님한테 세 가지 질문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나왔는데 이미 스님께서 그 답을 다 해 주셨거든요, 그러나 뜻은 같지만 제가 생각하는 색채가 다르기 때문에 다시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쪽에 떡을 들고 있는 제 모습, 더불어 많은 분들의 모습을 제가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배부르고 등 따지면서 마음 다스리는 공부 하기는 참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내가 진정으로 배가 부르고 등이 따신데 옆 사람이나 자비의 생각이 절대 안 든다는 생각이 들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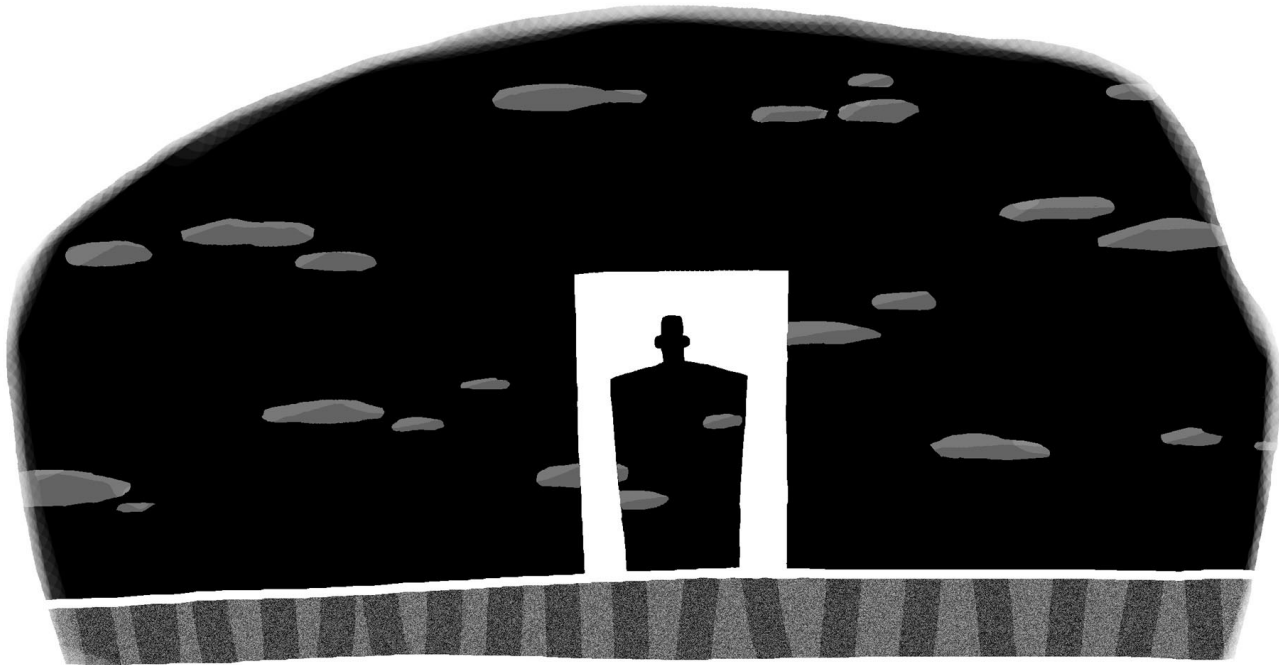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차후에는 그렇게 들겠죠, 그러나 저희가 마음이 닦이지 않은 상태에서 등 따시고 배부르면서 마음공부 하기가 참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항상 어려운 역경, 어려운 경계, 어려운 생활고 그 속에서 자기 마음을 밝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스님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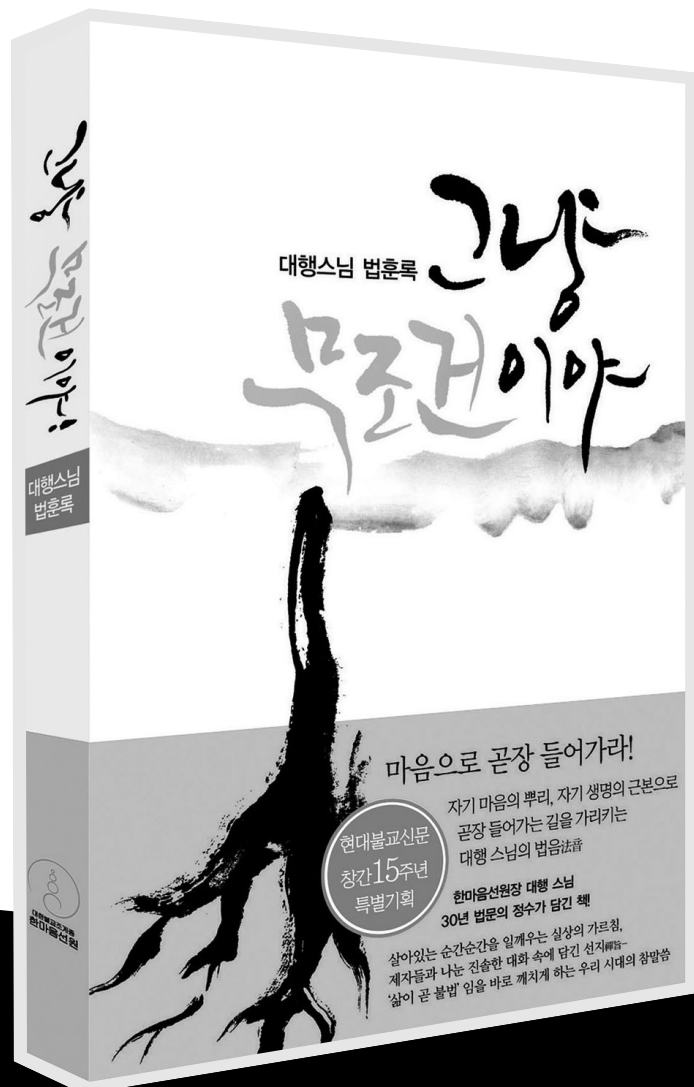
**큰스님** 공부하는 태도가 말입니다, 아까도 저 부처님을 따로 보되 자기로 다 돌렸지만 사람 사는 게 그 모두 천차만별로 가지가지 헤아릴 수 없는 생활인데 귀찮게 어떻게 그렇게 갈거리 찢어서 살 수가 있겠소?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도 저 부처님을 보되, 나의 모습을 보되 모든 거를 자기 모습과 둘 아나게 그냥 등글러서 주인공 하나로 보란 얘기죠, 그렇게 하면 편리할 거를 그냥 마음으로 이렇게 짓고 저렇게 짓고 해서, 예전에 고사를 지내도 여기 갖다 놓고 저기 갖다 놓고 저기 갖다 놓고 이렇게들 모두 공평치 못하게 살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어려운 경계가 없으면 공부하기가 어렵다고 그랬죠? 그랬는데 사실은 그것도 마음먹기에 달렸어요, 왜 어렵게 만들어 가지고 공부를 하느냐 이거야, 어렵지 않은 처지에서는 어렵지 않게 공부를 하지, 그건 왜냐하면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 게 아니거든, 그리고 검소하게 살아야 하거든, 자기 분수에 맞게 말이야, 인간이 살아나가는 경계에서 분수에 맞게, 우리 한국 나라라는 것도 잊지 말고, 내 가정의 부모가 대대로 내려오면서 어떻게 지내온 것도 알아서 내가 분수에 맞게, 그리고 있는 자는 더 검소해야 된다, 익은 자는 더 고개를 수그러야 된다, 허리를 굽혀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재산이 있다 그래서 마구 사는 사람은 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겠죠.

하지만 이 마음공부 하는 사람들은 있으나, 있는 사람이 사는 거나 없는 사람이 사는 거나 똑같아야 된다, 똑같아야 하고 그 반면에, 나는 내가 안 하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지만, 하여튼 어려운 집이 있으면 좀 도와 주기도 하고, 절 짓는 데 보태는 것만 불사가 아니거든, 굶어서 애쓰고 자식들이 아파서 애쓰고 부모가 아파서 자식들이 애쓰고 소년소녀 가장들, 또 자식이 없는 부모들, 노인네들

30면으로 계속

##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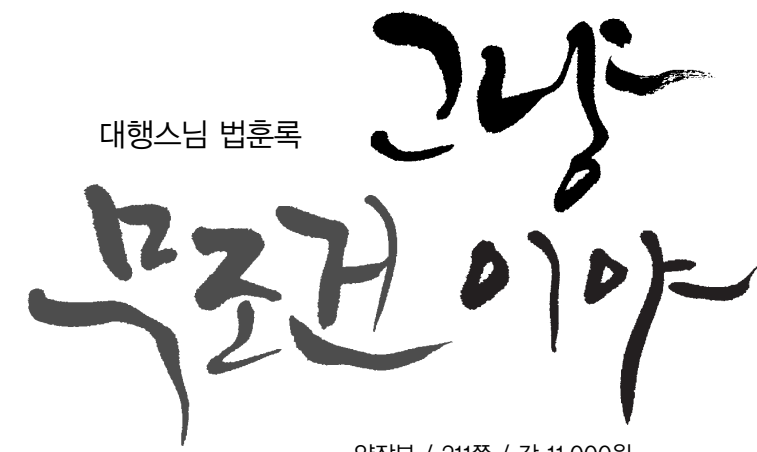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는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양장본 / 21쪽 / 값 11,000원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수송동) 2층 현대불교 현불샵